【 국내금융 뉴스 】

일본 대지진과 국내 보험산업

□ 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보험금 지급액이 최대 350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으나 국내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됨.

o 국내 생명보험회사의 자산 및 매출에서 해외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0.1%이고 손해보험회사도 자산 1.0%, 매출 0.5%로 해외사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지 않아 일본 대지진이 보험산업에 주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임.
  - 일본의 경우 국내 보험회사들이 현지 법인이 아닌 주재사무소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대부분 정보수집 활동 역할만을 수행하고 있음.

o 국내 유일의 재보험회사인 코리안리 역시 수재보험료 중 일본의 비중은 1%에 불과하고 이 또한 일부를 다시 출재하였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 약 50억원 규모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지만 손해율에 대한 영향은 미미할 것임.

□ 일본 대지진으로 인해 국내에서도 지진보험 및 원자력 보험 관련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됨.

o 일본 대지진을 계기로 국내 지진보험의 도입이 빠르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과 아직 도입은 시기상조라는 주장이 양립함.
  - 일부는 일본처럼 지진보험을 활용해 피해복구 시스템을 사전에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며 정부와 민간이 부담을 나누는 풍수해보험과 같은 정책성 보험이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다고 주장함.
  - 반대로 일각에서는 지진위험에 대한 인식이 낮은 상태에서 상품이 출시되더라도 구매하는 소비자가 적고 보험료 부담만 가중될 수 있어 중장기적 검토의 대상이 될 수는 있으나 아직 시기상 너무 빠르다는 주장이 존재함.

o 한편, 원자력 보험의 경우 현재 국내 보험회사들이 '원자력 보험 풀(Pool)'을 구성하여 관련 리스크를 담보하고 있으며 향후 원자력 발전소 건설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관련 보험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함.

(일본 지진 국내보험사 영향 제한적 등, 보험뉴스 등, 3/15)